

“개헌 수준 자치권 필요”... 트램은 “글썸”

제39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

원희룡 지사 “제주특별법 포괄적 권한 이양 지지부진” “트램 노선 확보 따른 건물주 협의·경제성 등 과제 많아”

원희룡 제주지사는 제39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포괄적 권한 이양이 이뤄지지 않아 제주특별법을 수백 차례 개정하고 있는 문제점을 짚은 고현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의 질문에 “(제주특별법 제정 당시) 노무현 정부가 외교·국방·사법을 제외한 모든 권한의 포괄적

원 지사는 21일 열린 제39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포괄적 권한 이양이 이뤄지지 않아 제주특별법을 수백 차례 개정하고 있는 문제점을 짚은 고현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의 질문에 “(제주특별법 제정 당시) 노무현 정부가 외교·국방·사법을 제외한 모든 권한의 포괄적

인 이양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진행하겠다고 했지만, 그다음 2·3단계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면서 “개헌 수준의 자치권 시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과감한 실험을 해야 미래에 대비할 수 있다. (정부가) 형평성을 이유로 손발을 묶으면 제주가 무슨 특별법이 있겠느냐”면서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또 원 지사는 드림타워 카지노 확장·이전 허가 조건으로 도의회가 제시한 도민 고용 80% 준수 등의 조건을 사업자가 최대한 지킬 수 있게 행정감독권을 발동하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드림타워 카지노 사업자

의 사회공헌 이행 계획에 대한 실천 가능성을 묻는 고 의원의 질문에 “현재로서는 조건을 어길 경우 법적으로 카지노 확장·이전을 취소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때문에) 앞으로 카지노 갱신허가제와 양도양수 사전인가제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조건을 어긴다고 해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수단은 없지만) 카지노는 행정관청에 의한 규제 권한이 아주 강한 사업이기 때문에 상생 조건을 최대한 성실히 이행하도록 다방면으로 행정감독권을 발동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원 지사는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미래비전 영역과 현재 수립 중인 제주국제자유도시 제3차 종합계획에서 검토되고 있는 트램 사업에 대한 입장을 묻는 김황국 의원(국민의힘, 용담1·2동) 질문에 “친환경, 미래 기술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개념 자체는 좋다고 본다”면서도 “경제성이나 노선 확보를 위한 기존 건물 소유주와의 협의 등 많은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다른 급한 일을 제쳐두고 (트램을) 추진하기에는 솔한 의사 결정 과정도 남아 있어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 이날 원 지사는 대형 화물트럭의 추돌 사고로 제주대학교 입구 교차로에서 6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에 대한 재발 대책으로 “5·16도로 등 급경사 구간에서는 화물트럭 운행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21일 제주도의회 제394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원 지사, 국민의힘 ‘자강론’ 속 가능성 봤나

어제 지선 불출마 공식 표명 당내 인물난 기회될 수 있을까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21일 내년 지방선거를 불출마하고 대권에 도전하겠다고 표명한 배경으로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에서 대두하는 ‘자강론’이 언급되고 있다.

원 지사는 이날 제주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대권 도전 의지를 밝혔다.

‘자강론’은 외부 인사를 영입하기에 앞서 평가절하된 당 내 인재들을 키우자는 주장이다.

지난 4·7 재보궐 선거 승리 뒤 사퇴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퇴임사에서 “스스로 강화할 생각은 없고 외부세력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힘이 수권정당·민생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한 철저한 자기혁신의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며 당 내에서 인물을 키워야 한다는 데 힘을 실었다.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일부 후보자도 자강론을 주장하고 나섰다. 김기현 당 대표 후보는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평가절하된 당 내 인재들을 제대로 평가 받도록 하는 게 우선 과제”라고 주장했다.

‘자강론’은 지난 4·7 재보궐선거

승리로 더 힘을 얻고 있다. 당시 오세훈 시장은 초반 지지율은 미미했지만 당 후보로 선출된 뒤 지지율이 앞섰던 당 밖의 안철수 후보를 앞질러 결국 선거에서 승리했다.

‘자강론’이 탄력을 받을 경우 원 지사의 대권 도전 기회의 문은 더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간 국민의힘이 야권 통합에 비중을 두면서 당 내 대권주자는 원 지사와 유승민 전 의원 정도가 거론되는 등 인물난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원 지사가 이같은 여러 상황 변화를 고려해 도지사 선거 대신 대권을 택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당 내 경선에서 경쟁자인 유승민

전 의원에 밀리지 않는다는 판단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 대선이 중도의 표심을 얻는 것이 최대 관건으로 떠오른 만큼 원 지사는 출신지인 제주가 영남남 지역 주 의에서 자유롭고, 서울·부산시장 선거 이전에 자신이 국민의힘에서 텃밭인 대구경북을 제외한 유일한 자치단체장이었다는 점 등을 내세울 수 있다.

하지만 아직 당의 여론은 자강론 보다는 야권 통합에 무게 중심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당 관계자는 “당이 김종인 체제에서 차기 대표 선출을 준비하며 당 내 대권주자에 대한 관심이 큰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며 “원 지사의 경우 자신만의 경쟁력과 확장성을 입증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SINCE 1989
한라일보 32주년

펼치면 보이는 아름다운 세상과 삶의 이야기

한라일보 창간 32주년을 축하합니다

저희 범양철재 임직원 모두는 더불어 함께 사는 우리 이웃이 건강한 삶과 행복을 지켜가는 제주도민의 기업으로서 책무를 다하며 끊임없는 도전과 창의적인 사고로 고객 만족의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국제강(주)제주하치장 | 동국제강(주)제주대리점 | 드림스틸

범양철재 주식회사

대표이사 강경대

제주시 노형로 143 TEL. (064)747-2543, FAX. (064)746-2543

SINCE 1989
한라일보 32주년

편안하고 즐거운 제주여행!
제주특별자치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함께 합니다.

저희 제주특별자치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회원 모두는 제주도민과 관광객 여러분이 편안하고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한라일보 창간 32주년을 축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전 영 배

선임이사	강성철	이사	강승우	이사	이이모
이사	강대현	이사	강길만	이사	이문도
이사	진영화	이사	이창호		
이사	한영철	이사	노해필	감사	강영두
이사	고성빈	이사	고동범	감사	정법실